

고흥 농어촌서 제2의 인생 시작 ‘문 활짝’

‘와야 고흥스테이’ 2호 신축…주택·실습농장 등 구축
내달 9일까지 11세대 모집…월 임대료 15만원 ‘저렴’

고흥군이 농어촌에서 제2의 인생을 꿈꾸는 사람들에게 문을 활짝 열고 이주를 위한 기반시설을 구축했다.

17일 고흥군에 따르면 남양면 귀농귀촌행복학교 내에 신축 조성한 와야 고흥스테이 2호 입주자를 모집한다.

와야 고흥스테이 2호는 2022~2023년 지방소멸대응기금(귀농귀촌 복합 교육 인프라 조성) 31억원을 투입해 조성된 공공임대주택으로 단독·다가구 주택 11호, 공동 실습농장, 세대별 텃밭, 농자재 보관 창고 등을 갖추고 있으며 지난 3월 준공됐다.

이 시설은 고흥군으로 귀농귀촌을 희망하는 외국인에게 임시 주거 공간을 제공하고, 체류 기간 동안 다양한 영농 정보와 기술을 습득할 수 있도록 지원함으로써 안정적인 지역 정착을 돕는 데 목적이 있다.

입주 세대는 원룸형으로 단독주택 5호와 다세대주택 6호 등 총 11세대를 모집하며, 세대별 텃밭도 함께 제공된다.

모집 대상은 공고일 기준 고흥군 외 타 지자체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이 돼 있는 외국인으로, 입주 전까지 신청한 모든 세대가 고흥군으로 주소를 이전해야 한다.



와야 고흥스테이 2호 전경.

모집 기간은 다음달 9일까지이며, 정량 평가(연령, 가구수, 농어업 관련 교육 이수 실적 등)와 정성평가(귀농·귀촌 계획, 고흥 정착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입주자를 선정한다.

입주 후 체류 기간은 1년 이내이며, 입

주 희망 대가자가 없고 체류 연장을 원하는 경우 1년 이내의 범위에서 추가 이용이 가능하다.

월 임대료는 15만원(보증금 150만원)이며, 냉장고, 인덕션, 에어컨, 블라인드 등 기본 옵션이 제공된다. 전기세, 수도세 등 각종 공과금은 입주자 부담이다.

자세한 내용 및 신청 서식은 고흥군 대표 누리집(홈페이지) 고시·공고란에서 확인할 수 있다.

공영민 군수는 “외지인들이 고흥에서 첫발을 내디딜 수 있는 편안한 보금자리를 제공하기 위해 와야 고흥스테이 2호의 문을 열게 됐다”며 “귀농어 귀촌인들이 안정적으로 고흥에 정착할 수 있는 거점 공간으로서 내실 있게 운영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고흥=김두성 기자 kds081177@gwangnam.co.kr

LOCAL

2025년 4월 18일 금요일

장흥, 어르신 일자리 안전교육
응급상황 대처법 등 예방 대책

장흥군은 최근 노인일자리와 사회활동 지원사업 10개 읍·면 전담인력, 팀장 등 30여명을 대상으로 안전교육을 개최했다고 17일 밝혔다.

교육은 노인일자리 참여자들의 안전한 근무 환경 조성을 위해 전담인력들이 알아야 할 기본 수칙, 응급상황 대처법, 근무 중 발생할 수 있는 위험 요소 분석과 예방 대책 등이 포함돼 있다.

군은 노인일자리 사업이 발전할 수 있는 소통의 장을 마련해 전담인력 간의 네트워크를 강화해 원활하게 노인일자리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지원할 방침이다.

군 관계자는 “‘Let’s go 안전장흥’에 걸맞게 참여 어르신들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해 어르신들의 활기차고 건강한 노후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양질의 일자리를 만들겠다”고 말했다.

장흥=정명수 기자 jms050311@

영광, 공설추모공원 현장 점검
6월 개원식·하반기 시범운영

영광군은 최근 군남면 대덕리에 조성 중인 ‘영광군 공설추모공원’ 현장을 방문해 개원을 앞둔 준비 상황을 점검했다고 17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하반기 시범운영을 앞두고 공설추모공원의 전반적인 공정 진행 상황과 시설 상태를 확인하고, 향후 일정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현장을 면밀히 살펴보기 위해 마련됐다.

현재 공설추모공원은 1층 납골안치단 설치, 내부 인테리어 공사, 2단계 개발 공사 등 주변 정비사업이 활발히 진행 중이며, 오는 6월 말 개원식과 하반기 시범운영을 목표로 준비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하반기 시범운영은 화장 유골을 대상으로 우선 시행되며, 봉안 및 분묘유골(개장 및 이장)은 제외된다. 운영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과 예외사항을 사전 파악해, 2026년 1월 본격 운영에 만전을 기할 계획이다.

군 관계자는 “그동안 타 사설 봉안시설이나 추모공원을 이용하며 시간적·경제적 부담을 감수해야 했던 많은 군민의 불편이 해소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군민 누구나 믿고 이용할 수 있는 품격 있는 장사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영광=정규필 기자 ykjpg98@gwangnam.co.kr

‘탄소중립 흙 살리기 박람회’ 준비 본격화
구례, 추진위원회 첫 회의 열고 기본계획·운영 등 논의

구례군은 최근 군청 상황실에서 탄소중립 실천과 지속 가능한 농업환경 조성을 위한 ‘2025 탄소중립 흙 살리기 박람회’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 박람회 추진위원회 회의를 열었다고 17일 밝혔다.

탄소중립 흙 살리기 박람회 추진위원회는 전 순천대학교 조경학과 조남훈 교수를 위원장으로, 관련분야 교수, 기관·단체장, 농업협회장으로 구성됐다. 회의에서는 박람회의 기본계획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논의했다. 또 구례에서 시작된 흙의 변화와 비전을 제시하고 지역농업과 연계한 실질적인 대안을 마련하는 방안도 함께 모색했다.

김순호 군수는 “탄소중립 흙 살리기 박람회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해 위원회들의 전문적인 조언과 협조를 부탁드린다”며 “박람회가 장기적인 목표와 비전을 가진 행사로 나아가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군은 오는 9월 19일부터 21일까지 지리산역사문화관에서 ‘2025 탄소중립 흙 살리기 박람회’를 개최한다. 박람회에는 흙 살리기 주제관, 기업 부스, 체험·판매 등 다양한 프로그램이 마련돼 관람객에게 다양한 볼거리를 제공할 예정이다. 구례=전창제 기자 dong-eah@



구례군은 최근 군청 상황실에서 탄소중립 실천과 지속 가능한 농업환경 조성을 위한 ‘2025 탄소중립 흙 살리기 박람회’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 박람회 추진위원회의 회의를 열었다.

여수, 기후·에너지 시장협약 이행 ‘최고 등급’ 곡성, 민생활력지원금 지역경제 ‘활력’

탄소중립 실현 앞장 등 고평가

여수시는 최근 이클레이(세계지방정부협의회)가 주최한 ‘세계 지방정부 기후총회’에서 2024년도 글로벌 기후·에너지 시장협약(GCoM) 이행평가 최고 등급을 수상했다고 17일 밝혔다.

GCoM은 전 세계 도시들이 기후위기 대응과 에너지 전환을 적극 추진하도록 장려하는 국제협약으로, 현재 140개국의 1만3400개 도시가 참여하고 있다. 여수시는 지난 2021년에 가입했으며, 국내에서는 총 28개 지자체가 동참 중이다.

이번 평가에서 여수시는 온실가스 감축

과 기후위기 적응 부문 6개 평가 모두에서 GCoM 배지의 최고 등급인 ‘준수’를 획득, 국제무대에서 기후위기 대응 선도 도시로서의 위상을 다시 한번 입증했다.

평가 항목은 온실가스 감축(인벤토리, 목표, 계획), 기후위기 적응(평가, 목표, 계획), 에너지 분야(평가, 목표, 계획) 등 3개 분야, 9개로 일정 수준 이상의 평가를 받은 항목마다 GCoM 배지가 부여된다.

시는 그동안 다양한 온실가스 감축 정책과 기후위기 적응사업을 통해 탄소중립 실현에 앞장선 점과 기후변화 대응 민·관·산·학 협의체와 함께 GCoM 보고 과정을 준비한 점 등이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고 있다. 여수=송원근 기자

지역화폐 환전 금액 22억4000만원…전년보다 99배 ↑
마트·식당·전통시장 등 생활밀접 업종서 고르게 소비

곡성군이 군민 생활 안정을 도모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지급한 민생활력지원금이 지역 내 소비 진작에 뚜렷한 효과를 보인 것으로 나타났다.

17일 곡성군에 따르면 군은 지난달 중순부터 군민 2만7000여명에게 각 20만원씩 민생활력지원금 지급을 시작했다. 지급률은 현재 95%에 달한다.

지원금은 지역사랑상품권 형태로 제공돼 지역 내 선순환 소비로 직결된 것으로

조사됐다.

지원금 지급 이후(3월 17일~4월 4일) 지역화폐 환전 건수는 총 22만4832건으로 환전 금액은 전년 같은 기간에 비해 99배 증가한 22억4000여만원을 기록했다.

특히 이번 지원금은 특정 업종에 집중되지 않고, 지역 내 다양한 생활 밀접 업종에 걸쳐 고르게 소비된 것으로 나타났다. 업종별 환전 금액 상위 항목은 슈퍼마

켓이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주유소, 식당, 전통시장, 편의점, 약국, 커피전문점, 의류·생활용품 소매업 등 순이었다.

이는 군민이 생필품을 비롯해 의식, 주거, 의료, 생활 소비 전반에 지원금을 적극 활용했음을 보여주는 결과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등 지역 상권 전반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다는 평가다.

군 관계자는 “이번 민생활력지원금은 지역 내 소비를 촉진하고 실질적인 경제 효과를 불러일으킨 의미 있는 사례다”며 “군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이승홍 기자 photo25@gwangnam.co.kr

No.1 Premium Balance Golf Ball

단 하나의 진짜

[Yes & True Balance]

밸런스 라인

엑스페론